

'25.11.7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아 · 태

○ 파키스탄, 對테러 작전을 통해 테러범 18명 사살

- 10.30 언론은 파키스탄 정부가 인도의 지원을 받고 발루치스탄州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러조직 소탕을 위해 2차례 對테러 작전을 수행하여 테러범 18명을 사살하고 폭발물 등을 회수했다고 보도
- ※ 최근 파키스탄에서는 경찰·軍 등을 겨냥한 테러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고 부언

○ 韓, 테러단체 활동 확산으로 말리 전역에 '여행금지'

- 11.1 언론은 말리에서 알카에다 연계 테러단체인 JNIM의 활발한 활동으로 치안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, 외교부가 4일부터 말리 전역에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라고 보도도
- ※ 현재 말리 전역에는 출국을 권고하는 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중으로 한국 교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수도는 사실상 봉쇄상태라고 부언

○ 韓, 항공기 사고·테러 대비 사상 최대 실전 훈련 실시

- 11.1 언론은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사고와 피랍 상황을 가정한 테러 대응 훈련이 민·관·군·경 등 33개 기관(인원 490여명·장비 110여대)이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고 보도
- ※ 항공 의존도가 높고,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항공 노선을 보유한 제주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테러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고 부언

중 동

○ 이스라엘, 테러조직에 사제 폭발물 제공한 10대 체포

- 10.30 언론은 이스라엘 경찰이 주거지를 급습하여 테러조직에 사제 폭발물을 공급한 팔레스타인 10대 남성을 체포하였으며, 同人*은 예루살렘에 있는 '라헬의 무덤'에서 테러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부언
- * 1년전 폭발물 25개 소지한 혐의로 구금됐다가 지난 1월 이스라엘-하마스 휴전 때 석방

미 주

○ 美 헬러윈 테러 용의자들, '제2의 파리 테러' 모의

- 11.4 美 연방수사국(FBI)은 지난달 31일 헬러윈을 앞두고 테러 모의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2명이 IS의 영향 아래 2015년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총격 테러 등과 같은 테러를 공모했다고 발표
- ※ FBI는 테러 용의자들이 헬러윈이나 그 전후에 자행될 공격을 위해 소총 등 무기와 탄약 1천600발을 구입해 미시간주 인근 사격장에서 연습을 했다고 부언

○ 美, 미국인 절반 이상이 향후 5년 내 정치인 암살 가능성 예상

- 11.4 언론은 美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향후 5년 내 정치인 암살 가능성과 정치폭력 증가를 우려하며,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정치폭력 정당화 인식이 확산중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

유 럽

○ 獨, 베를린서 폭탄테러 준비한 시리아인 적발

- 11.3 언론은 독일 베를린에서 테러 모의 등 혐의로 22세 시리아 국적자(보충적 보호 신분*)가 체포되었으며, 同人이 자살폭탄 테러 계획하고, 소셜미디어에 IS 선전음악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
- * 망명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모국 상황을 고려해 내주는 일종의 인도적 체류허가

아프리카

○ 나이지리아, 트럼프 대테러 군사지원에 '영토 보전 인정시' 찬성

- 11.3 언론은 1일 트럼프 대통령의 "이슬람 테러범들을 제거하기 위해 나이지리아에 '총을 쏘며' 들어갈 수 있다"는 발언 관련,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의 영토 보전을 인정하는 한 대테러 군사지원을 환영한다고 보도

※ 美 대통령의 나이지리아 대테러 군사지원은 보코하람 등이 기독교인을 학살하는데도 나이지리아 정부가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언

역사속 테러사건

아프가니스탄 바글란 설탕공장 폭탄 테러('07년)

- '07.11.6 아프가니스탄 바글란 중심부에서 설탕공장 재가동 행사에 참석한 의원 대표단과 다수의 시민들을 노린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하여 총 최소 80명이 사망하고 100명의 부상자 발생
 - 현장 감식간 테러범은 볼베어링 같은 파편을 가득 담은 폭발물을 제작하였으며, 정황상 다수의 민간인을 목표로 한 공격으로 판단되었으나 테러의 배후와 관련된 단서는 확인하지 못하고 상황 종결
 - 이와 관련, 전문가들은 폭발로 인해 사망한 국회의원 6명이 주요 야당 인사들이었으며, 同시기 자살폭탄 테러는 대부분 탈레반의 소행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 연관된 세력의 배후 가능성을 판단
 - 또한, 탈레반이 남·동부 軍·경·외교관 중심 표적에서 벗어나 의회·대중이 함께 있는 행사를 겨냥한 점에 대해 더 큰 인명피해와 심리적 충격을 주기 위해 공격 전술이 변화된 사건으로도 평가
- ⇒ **고위급 방문·대형 공공행사시 테러의 위험성과 여파를 인지하고 명확한 책임규명에 대한 테러 취약요인 예방·대응책 수립 필요**

테러 상식

< 탈레 반(Taliban) >

- (활동지역) 아프가니스탄(집권국가), 파키스탄
- (목적) 샤리아(이슬람법)에 기반한 통치 수립, 질서 회복과 전통적·종교적 가치 복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목표물을 공격
- (특징) ① 게릴라·비대칭 전력 - 매복, 급습, 차량폭탄, 자살폭탄 등
 ② 정치 표적화 - 관료, 의회, 정부요인, 외국인 등을 겨냥해 공격
 ③ 홍보·선전 - 전통적·디지털 매체를 통해 영향력 확장 시도
- (주요테러) 2008년 카불 세레나 호텔 공격(외교인·기자 급습, 20여 명 사망)
 2014년 페샤와르 학교 테러(軍 자녀 학교 습격, 150명 사상)
 2021년 카불 공항 폭탄 테러(미군 철수 중 공격, 183명 사망)